

현안과 과제

- 하반기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 디커플링되는 주요국 경기 속 커지는 중국 리스크

목 차

■ 하반기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 디커플링되는 주요국 경기 속 커지는 중국 리스크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2
3. 시사점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분석팀

(미 국) : 이형석 연구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유 로 존) :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일 본) :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 이형석 연구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인 도) :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베 트 남) :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하반기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 디커플링되는 주요국 경기 속 커지는 중국 리스크

■ 개 요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의 완화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제조업 업황과 교역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향후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OECD 선행지수(G20 기준)는 작년 12월 저점(99.0p)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7월 99.7p까지 상승해 향후 경기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업 업황은 펜트업 수요(pent-up)의 점진적인 완화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글로벌 수출 증가율(상품, CPB)은 -1.3%를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 증가율도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현재 경기 상황과 부문별 이슈 및 향후 경기 추세에 대해 논의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① 미국 : 견조한 내수를 바탕으로 1% 후반 성장세 전망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및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연율, %)은 각각 2.0%, 2.1% 기록하였다. 특히, 민간소비와 투자를 반영하는 민간최종구매액(Private Domestic Final Sales, 전기비연율)은 동기간 각각 3.2%, 2.3%를 기록하면서 작년부터 시행한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내수가 견조한 모습을 시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통화긴축의 누적효과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23년 8월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3년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상승률은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하반기에도 미 연준(Fed)은 통화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은행 상당수가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용여건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하반기는 상반기 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1% 후반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② 유로존 :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전망

유로존 경제는 올해 상반기 대외부문의 개선에도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성장세

가 크게 둔화되었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유로존 경제는 각각 전년동기비 1.1%, 0.6% 성장하면서 202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부문별로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이 반등(1분기, 1.9%)하고 무역수지가 흑자(상반기 52.8억 유로) 전환하였지만, 그동안 유로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 증가율(1분기, 0.8%)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는 생산과 소비의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고물가 현상까지 장기화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로존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PMI가 지난 6월 위축 전환한 이후 8월 현재 47.0p로 위축 국면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소비자의 경기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개선도 미흡하여 향후 경기 반등 기대감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었지만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유로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올해 유로존 경제는 하반기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된 연간 0.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일본 : 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으로 2023년 1% 중반대 성장 기대

상반기의 경우 1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2분기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1, 2분기 민간소비가 각각 1.5%p, 0.1%p를 기록했고, 순수출은 -0.7%p에서 1.1%p로 플러스 전환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1~7월 누적 약 1,300만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9배나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중심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내수부문은 주요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진 반면 외수부문은 중국 등 아시아 수출 부진 탓에 총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군다나 10년물 국채금리가 0.6%를 상회하는 등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전환, 제한적이거나 금리상승에 의한 투자 및 소비 위축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성장세 둔화로 1% 중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④ 중국 : 기저효과와 정부정책으로 성장목표치(5%)를 힘겹게 달성할 전망

상반기는 리오프닝(reopening)과 기저효과로 5% 중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기대 이하의 보복수요로 소비회복이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부진도 지속되

고 있다. 2023년 1분기 및 2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은 각각 4.5%, 6.3%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매판매 증가율은 3월(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점차 둔화하면서 7월에는 2.5%까지 낮아졌다. 7월 수출증가율 -14.5%를 기록하는 등 대외 교역 부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실물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성장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급격한 성장 둔화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률(70개 도시 기준, 전년동월대비)이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지수 역시 작년 1월 이후 19개월 연속 기준선(100p)을 하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비구위이안(碧桂園), 완다(萬達), 시노오션(遠洋集團)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심리도 악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부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은행권 부실대출(NPL, CEIC) 비율은 2023년 1분기 1.62%를 기록하며, 여전히 2%를 하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리만 모멘트(Lehman Moment)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치국회의(7.24일)는 거시경제정책 강화, 실물경기 부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등을 강조하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7.31일)는 내구재·디지털 소비의 진작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급격한 경기둔화를 제한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중국의 경제는 기저효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성장목표치(5%)를 힘겹게 달성할 전망이다.**

⑤ 인도 : 견고한 내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지속

인도 경제는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2분기 인도 경제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수(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에 힘입어 7.8% 성장하였다. 부진한 대외 수요로 인한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산업생산의 꾸준한 증가세, 물가 안정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연간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말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바, 내수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의료 서비스 등의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 재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⑥ 베트남 :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6% 중반 성장 목표 달성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 생산 동반 부진 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성장세가 대폭 둔화되었다.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1, 2분기 각각 5.1%, 7.8%로 고성장이었지만, 올해는 각각 3.3%, 4.1%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올해 들어 6월까지 2월을 제외한 5개월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제조업 생산 증가세도 동반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반기는 적극적인 금융 및 재정 완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고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올해 4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4% 중반대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 전후 수준으로 하락했고, 환율도 지난해 11월 평균 24,800동(VND)/달러대에서 최근 23,600동(VND)/달러대로 하향 안정되었다.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해 말 약 856억 달러에서 7월 약 882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를 배경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3월 6.0%였던 기준금리를 4.5%로 3차례 인하했다.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8월에는 비자면제국 대상 체제 일수 완화(15일에서 45일)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상반기 부진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은 성장 목표치인 6.5%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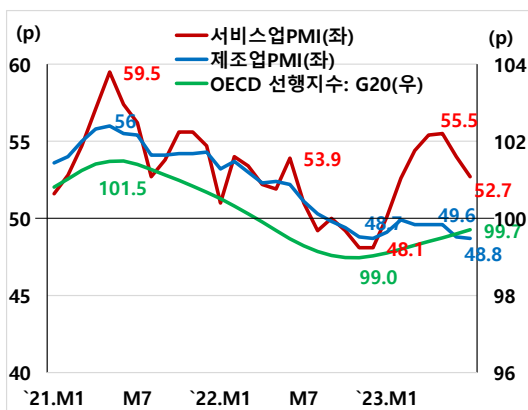
■ 시사점

2023년 하반기 주요국 경기의 디커플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주요국 경기 차별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출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디리스팅(De-risking) 전략을 준비해 중국발 경기둔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

1. 개요

-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의 완화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글로벌 제조업의 업황과 교역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 OECD 선행지수(G20 기준)는 작년 12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을 예고
 - 2022년 12월 OECD 선행지수는 99.0p로 최측근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7월에는 99.7p까지 상승
 - 그러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업 업황은 펜트업 수요(pent-up)의 점진적인 완화로 둔화 조짐이 나타남
 - 글로벌 제조업 PMI는 작년 9월 이후 기준치(50p)를 하회
 -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기준치를 상회 중이나 지난 5월(55.5p) 정점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7월에는 52.7p를 기록
 - 글로벌 상품 교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2023년 6월 글로벌 수출 증가율(상품, CPB)은 전년동월대비 -1.3%를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 글로벌 수입 증가율도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현재 경기 상황과 부문별 이슈 및 향후 경기 추세에 대해 논의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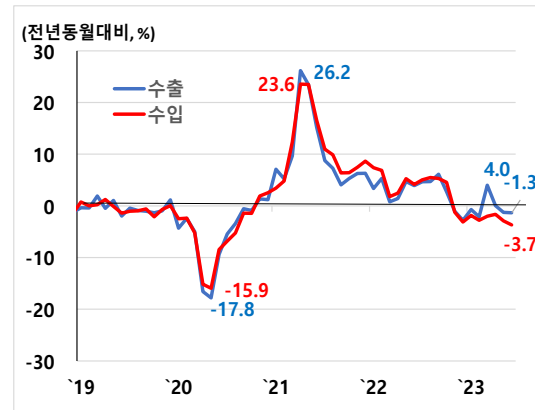
< 글로벌 PMI, OECD 선행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OECD.

주 : Global PMI는 기준치가 50p, OECD 선행지수는 100p.

< 글로벌 상품 수출/수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CPB.

주 : 재화의 수출입 기준.

2.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① 미국 : 견조한 내수를 바탕으로 1% 후반 성장세 기록 전망

○ (상반기 평가)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고강도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분기 및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연율, %)은 각각 2.0%, 2.1% 기록
- 민간소비와 투자를 반영하는 민간최종구매액(Private Domestic Final Sales, 전기비연율)은 동기간 각각 3.2%, 2.3%를 기록하며 내수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하반기 전망)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통화긴축의 누적효과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질 전망

- 노동시장이 견조해 내수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통화긴축의 지속과 신용여건의 위축은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23년 8월 실업률은 3.8%로 전월(3.5%)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 다만, 2023년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상승률은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하반기에도 미 연준(Fed)의 통화 긴축은 지속될 전망
- 또한, 미국 은행 상당수가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용여건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

< 미국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년	'23			
		1/4	2/4	7월/3분기	연간(E)
실질 GDP 성장률(전기비연율, 전년 대비, %)	2.1	2.0	2.1	-	1.8
민간최종구매액(PDPS, 전기비연율, %)	1.1	3.2	2.3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6.5	5.0	3.0	3.2	-
실업률(%)	3.5	3.5	3.6	3.5	-
근원 PCE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4.6	4.6	4.1	4.2	-
미 연준 기준금리(상단, %)	4.50	5.00	5.25	5.50	5.50
은행 대출심사 태도(%p)	39.1	44.8	46.0	50.8	-
OECD 선행지수(p)	98.9	98.8	99.0	99.1	-

자료 : FRED, Bloomberg.

주1) 실질 GDP를 제외한 지표들의 분기 값은 3월과 6월, 연간은 연말 기준

주2) 2023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 전망치.

② 유로존1) :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전망

○ (상반기 평가) 대외부문의 개선에도 내수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

-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
 - 유로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은 2023년 1분기 1.1%, 2분기 0.6%를 기록하면서 202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성장세가 둔화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1분기, 1.9%)이 전분기대비 반등하였으나, 그동안 유로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 증가율(1분기, 0.8%)이 크게 악화
- 대외부문의 경우 상반기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입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2021년 하반기 이후 첫 흑자(52.8억 유로) 전환

○ (하반기 전망) 생산 및 소비 위축, 고물가 등으로 성장세 둔화 장기화 전망

- 생산과 소비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PMI가 위축 국면에 진입하는 등 향후 경기 반등 기대감도 약화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PMI가 위축 전환하고, 소비자의 경기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개선도 미흡한 상황
- 또한,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유지가 전망되는 점도 유로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

< 유로존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	'23			
		1/4	2/4	7월	연간(E)
총고정자본형성(전년동기비, %)	3.0	1.9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1.0	-2.5	-2.2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3	0.3	-1.3	-	-
수출(통관, 전년동기비, %)	18.2	8.7	-2.0	-	-
수입(통관, 전년동기비, %)	38.7	1.0	-14.2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	8.4	8.0	6.2	5.3	-
PMI 종합(p)	51.4	52.0	52.3	48.6	-
소비자신뢰지수(p)	-21.9	-19.6	-17.0	-15.1	-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	3.5	1.1	0.6	-	0.8

자료 : Eurostat, Bloomberg, IMF.

주1) PMI는 50 이상이면 확장, 이하면 위축을 의미

주2) 전망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3 참조.

1) 유로존 20개국 기준.

③ 일본 : 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으로 2023년 1% 중반대 성장 기대

- (상반기 평가) 1분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2분기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
 -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1, 2분기 각각 민간소비 1.5%p, 0.1%p, 설비투자 0.9%p, 0.5%p, 순수출 - 0.7%p, 1.1%p로 나타남
 - 민간소비의 경우 1~7월 누적 약 1,300만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9배나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
- (하반기 전망)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중심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까지 내수부문의 주요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진 반면, 외수부문은 중국 등 아시아 수출 부진 탓에 총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회복 지연 우려
 - 더군다나, 10년물 국채금리가 0.6%를 상회하는 등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전환, 제한적이거나 금리상승에 의한 투자 및 소비 위축 가능성도 상존2)
 - 일본의 실질 법인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1월 0.89%, 2월 0.88%, 3월 0.87%로 소폭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소비지출(근로자세대, 명목) 증가율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

< 일본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년	'23			
		1/4	2/4	7월	연간(E)
투자재출하지수(2020=100, p)	112.4	107.8	109.8	-	-
소매판매액(전년동월비, %)	3.8	6.9	5.6	-	-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p)	104.9	104.8	105.7	-	-
수출(통관, 전년동기비, %)	11.5	4.3	1.5	-0.3	-
수입(통관, 전년동기비, %)	20.8	7.4	-12.9	-13.6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	4.0	3.2	3.3	3.3	-
경기일치지수(p)	113.5	114.1	115.1	115.1	-
경기선행지수(p)	108.9	108.0	108.9	108.9	-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	1.0	2.0	2.0	-	1.6

자료 : 日本 内閣府 등.

주1) 실질 GDP를 뺀 지표들의 분기 값은 3월과 6월, 연간은 연말 기준

주2) 2023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日本総研(2023년 8월 28일)에 따르면 차입비용 1% 증가 시 설비투자는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④ 중국 : 기저효과와 정부정책으로 성장목표치(5%)를 힘겹게 달성할 전망

○ (상반기 평가) 리오프닝(reopening)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지속

- 기저효과로 상반기 5% 중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기대 이하의 보복수요로 소비회복이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부진도 지속되는 상황
 - 2023년 1분기 및 2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은 각각 4.5%, 6.3%를 기록
 - 소매판매 증가율의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감소세

○ (하반기 전망)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물경기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성장목표치(5%)는 달성할 전망

-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기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
 -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률(70개 도시 기준, 전년동월대비)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지수 역시 기준선(100p)을 하회
 - 비구위이안(碧桂園), 완다(萬達), 시노오션(遠洋集團)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가능성으로 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
- 단, 양호한 은행 건전성으로 금융시스템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
 - 중국 은행권 부실대출(NPL, CEIC) 비율은 2023년 1분기 1.62%를 기록하며, 여전히 2%를 하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성장목표치(5%)를 힘겹게 달성할 전망
 - 중앙정치국회의(7.24일)는 거시경제정책 강화, 실물경기 부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7.31일)는 내구재·디지털 소비 진작 강조

<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년	'23년			
		1/4	2/4	7월	연간(E)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	3.0	4.5	6.3	-	5.2
소매판매증감률(전년동월비, %)	-1.8	10.6	3.1	2.5	-
수출증감률(전년동월비, %)	-9.9	11.4	-12.4	-14.5	-
주택가격상승률(70개 도시, 전년동월비, %)	-2.3	-1.4	-0.4	-0.6	-
부동산경기지수(p)	94.4	94.7	94.1	93.8	-
OECD 선행지수(p)	98.9	99.8	100.5	10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0.7	0.0	-0.3	-
부실대출(NPL) 비율(%)	1.63	1.62	1.62	-	-

자료 : Bloomberg, CEIC.

- 주1) 실질 GDP를 뺀 지표들의 분기 값은 3월과 6월, 연간은 연말 기준
- 주2) 2023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 및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⑤ 인도 : 견고한 내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지속

○ (상반기 평가)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2023년 2분기 인도 경제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수에 힘입어 7.8% 성장
 -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견고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7.8%를 기록
- 부진한 대외 수요로 인한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산업생산의 꾸준한 증가세, 물가 안정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하반기 전망) 강력한 내수를 중심으로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수출 증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으로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금년 말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바 내수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
 -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의료 서비스 등의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물가 상승 압력 재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가능성 상존

< 인도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년	'23년			
		1/4	2/4	7월	연간(E)
총고정자본형성(전년동기비, %)	11.4	8.9	8.0	-	-
민간최종소비지출(전년동기비, %)	7.5	2.8	6.0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5.3	4.5	4.5	-	-
수출(전년동기비, %)	1.9	-10.1	-15.2	-15.9	-
수입(전년동기비, %)	14.4	-6.7	-12.8	-17.0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6.7	6.2	4.6	7.4	-
경기선행지수(100p 기준, p)	99.9	99.5	99.5	99.6	-
실질 GDP(전년동기비, %)	7.2	6.1	7.8	-	6.1

자료 : Bloomberg, IMF, OECD.

- 주1) 연간 수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해 2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임
- 2) 전망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3 참조.

⑥ 베트남 :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6% 중반 성장 목표 달성

○ (상반기 평가)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 생산 동반 부진 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성장세 대폭 둔화

- 전년 1, 2분기 각각 5.1%, 7.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동기간 각각 3.3%, 4.1%로 대폭 하락

· 이는 올해 1~6월까지 2월을 제외한 5개월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생산 증가세도 동반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 (하반기 전망) 적극적인 금융 및 재정 완화를 통해 성장세를 가속, 연간 경제 성장률은 성장 목표인 6.5%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고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올해 4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

· 지난해 말 4% 중반대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 전후 수준으로 하락, 환율도 지난해 11월 평균 24,800동(VND)/달러대에서 최근 23,600(VND)/달러대로 하향 안정

·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해 말 약 865억 달러에서 7월 약 882억 달러로 증가

· 중앙은행은 올해 3월 6.0%였던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해 4.5%로 낮춤

· 한편,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인하하고, 8월부터는 비자면제국 대상 체제 일수 완화(15일에서 45일) 등의 조치 시행

< 베트남의 주요 실물지표 및 성장률 전망 >

구분	'22년	'23			
		1/4	2/4	7월	연간
제조업생산지수(전년동월비, %)	0.6	-1.7	2.9	3.6	-
수출(통관, 전년동기비, %)	-15.6	-14.5	-11.0	-2.2	-
수입(통관, 전년동기비, %)	-14.1	-13.1	-18.0	-11.6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	4.5	3.4	2.0	2.1	-
외환보유고(억 달러)	865.4	882.1			-
기준금리(%)	6.00	6.00	4.50	4.50	-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	8.0	3.3	4.1	-	6.5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The State Bank of Vietnam 등.

주1) 실질 GDP를 뺀 지표들의 분기 값은 3월과 6월, 연간은 연말 기준

주2) 2023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베트남 정부 전망.

3. 시사점

- 2023년 하반기 주요국 경기의 디커플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주요국 경기 차별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출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

- 2023년 하반기 인도와 베트남 등은 안정적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한편, 중국 등은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국 경기 디커플링에 따른 외수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이에 정부 차원의 수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인도 등 신흥국과 자원 수출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 외교 정책을 통해 다변화된 수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
- 또한, 세계 수요시장이자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침체와 관련하여 취약 업종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둘째,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디리스크(De-risking) 전략을 준비해 중국발 경기둔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중국은 과도한 부채 누증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한-중 양국 간 외환시장 동조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외환시장 부진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원(China Plus One) 등의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시장과 생산 거점을 주요 경제 권역별로 다각화하고 전략 광물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

셋째,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OPEC+의 감산 연장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수요마저 회복될 경우, 지난해의 고물가 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
- 이에 대비해 원자재 가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HRI**

미 국 : 이 형 석 연구 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유 로 존 : 신 지 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일 본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 이 형 석 연구 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인 도 :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베 트 남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